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47,1-2.8-9.12

그 무렵 천사가 1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귀로 돌아갔다. 이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려 갔다. 2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대문 밖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8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9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12 이 강가 이쪽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강물이 즐기 즐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 하느님은 우리의 피신처, 우리의 힘. 어려울 때마다 늘 도와주셨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네. 땅이 뒤흔들린다 해도, 산들이 바다 깊이 빠진다 해도. ◎

○ 강물이 즐기 즐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하느님이 그 안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네. 하느님이 동틀 녘에 구해 주시네. ◎

○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야곱의 하느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네. 와서 보아라, 주님의 업적을, 이 세상에 이루신 놀라운 일을!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3,9ㄴ-11.16-17

형제 여러분, 9 여러분은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10 나는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저마다 잘 살펴야 합니다. 11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6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17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집을 선택하여 성별하고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리라. ◎ 알렐루야.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2,13-22

13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 올라 가셨다. 14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고 탁자들을 엮어 버리셨다. 16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17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18 그때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 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19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20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마흔여섯 해나 걸쳐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21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22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너희는 영적인 집을 짓는 살아 있는 돌이니, 거룩한 사제단이 되어라.

■ 공지사항

▪ 故 최대일 프레데릭 형제를 위해 영성체후 기도 후에 위령기도를 바칩니다.

- 장례 미사 : 11월 12일(수) 10:00 | Flanner Buchanan-Havilton Memorial Park, Prairie Waters (4180 Westfield Road, Westfield, IN 46074)

■ 우리들의 정성

▪ 미사 봉헌금 : \$715.00 (10/5), \$371.00 (10/12), \$498.00 (10/19), \$460.00 (10/26), \$456.00 (11/02)

▪ 교무금 : 신창식(11), 이상진(11-12), 정석훈(10-12), 최교균(11-12), 최낙현(11-12), 장재원(11), 정소훈(10-11)

교무금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하고자 하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적어도 한달 중 하루의 수익은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자는 취지로 자신의 한달 수입의 1/30(3.3%)이라도 책정하자고 제안합니다.

납부시 교무금 봉투에 '한글 이름', '세례명', '금액', '납입하는 월'을 정확하게 적으신 후 교무금함에 넣어 주세요. 납입 내역은 다음 주 주보, 월별로 게시판에 공지됩니다. 책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ovember 09, 2025 연중 제32주일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1코린 3,17).

You are the temple of God(1Cor 3,17).



천주교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of Our Lady of Holy Rosary in Indianapolis

- 성 당 : 7536 E 46th St. Indianapolis, IN 46226
- ☎ (317) 542-0863 (문자메시지 가능하며, 선호합니다)
- 홈페이지 : indykcc.org | 이메일 : [indykcckorea@gmail.com](mailto:indykcckorea@gmail.com)
- 사제관 : 7556 E 46th St. Indianapolis, IN 46226
- 사목회장 : 공성현 니콜라오 | 담당신부 : 김병조 베드로
- 주일미사 일요일 오전 11시 | 평일미사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부터. 사제에게 요청하세요.

■ 전례 봉사자

|    | 연중제32주일(11/09)<br>라테라노대성전봉헌 | 연중제33주일(11/16)<br>세계 가난한이의날 | 연중제34주일(11/23)<br>그리스도왕 대축일 |
|----|-----------------------------|-----------------------------|-----------------------------|
| 해설 | 정명호 미카엘                     | 정석훈 마태오                     | 최낙현 미카엘                     |
| 독서 | 오미숙   김세동                   | 정명호   김은경                   | 최아영   조윤경                   |
| 복사 | 공지나 가브리엘라                   | 황시우 베드로                     | 황시윤 바오로                     |
| 반주 | 한혜경 아녜스                     | 한혜경 아녜스                     | -                           |
| 제대 | 이명희 비비안나                    | 공승윤 수산나                     | 조윤경 로사                      |